

영국 런던의 Westminster교회의 마틴 로이드 존스(Martin Lloyd-Jones) 목사님은, 1955년부터 매주 금요일 밤에 로마서를 강해하셨습니다. 그의 강해는 1968년까지 1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14장17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강해를 시작할 때에 1:1절부터 하지 아니하고, 3:20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3장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장의 서론, 1:18절에서 3:20절에 이르는 죄론 -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바울의 긴 논증을 지나서, 이제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단숨에 나가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3장 20-4:25절을 강해하고, 나중에 7권, 8권에 나가서야 비로소 (로마서 8장을 끝내고 9장 앞에서) 1,2장을 강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에 도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죄(罪)를 이야기 해왔습니다. 양심법을 가진 인간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다 죄인(罪人)이라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죄(罪)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3:20) 이것은 청천(晴天)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律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 노력을 하던 유대인들(사람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事實)입니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물론 의(義)를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熱心)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율법은 그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중간목표(中間目標) 같은 것입니다. 최종목표(最終目標)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중간목표 같은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율법 밖에서 이 의(義)를 성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롬7:12)

자,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3:23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두 다 죄인(罪人)이라는 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에서, 범하다**는 과거형동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에서 못하다**는 현재형동사입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다 죄인(罪人)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역사(歷史)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인간의 역사(歷史)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chapter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redemption)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恩惠)로 값없이 의(義)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에서, 메시지가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자아상(自我想)은 어둡고, 우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살면, 아마도 우리의 이런 부정적 자아상(自我像)이 우리를 불행하게만 만들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대역사(大役事)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도, “한 사람도 없도다! 라는 탄식(歎息)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많은 일을 탄식으로 끝냅니다만, 전지(全知) 전능(全能)한 하나님

은, 절대 그렇게 끝낼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대책(對策)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의 문제를 극적(劇的)으로(dramatically) 풀어 가십니다.

오늘본문은 세 등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3:21 / 3:22-26 / 3:27-31)

I. 3:21절 (한절이지만, 4가지로 단어나 문장으로 끊어서 읽어봅시다)

“이제는 / 율법 외에 / 하나님의 한 의(義)가 나타났으니 /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1. 먼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3:21절은 “이제는(NOW)”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義)가 나타났으니!”

Now는 시간(時間)의 언어(言語)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4-6절처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의의 출현을 말합니다.

2.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율법 외에** 라는 말입니다.

<율법외에>라는 말은, 율법과 분리(分離)해서, 영어론, apart from law, 원어론(chóris) separately 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이, 율법과 구분해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율법외의 다른 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律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것의 내용입니다;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전환점(轉換點)”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인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보여, 벽에다 우리의 머리를 도리질 할 때에, 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극(極)과 극(極)의 차이가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인간의 의는 불완전한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이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새로운 충격적인 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까요? 수혈(輸血)에 비교 해볼까요? 수혈이란 피가 부족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에,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혈관에,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피를 수혈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인지요.

그것을 특별사면(特別赦免)이라는 말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정권이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을 사면합니다. 주로 정치범(政治犯)이나 잡범들을 사면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의 예외적용(例外適用)이고 특별법(特別法)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가담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징역 22년형을 받았던 중범죄자까지 석방하였다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선 국회의사당 점거는 집권당이 조장하고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면에는 항상 정당성의 논란이 따라 붙게 되어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21절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은, 율법적인 근거(根據)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쳐온 공의를 어긴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律法)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十誡命)을 지침으로 의를 얻는 방법체계를 율법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출애굽기공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다음에 성막제도(聖幕制度)를 주셔서,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각종 제사를 통해서 사죄(赦罪)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면, 이 율법의 체계도 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또한, 선지자들의 지지도 받는 다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일지는 4장에서 볼 터인데, 대표적인 선지자격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4장에서 볼 것입니다.

II.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22-26절을 살펴봅시다.

이 구절들은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義)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구체적(具體的)으로 말합니다. 4가지입니다.

1. 2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말입니다. 이신득의(以信得義)와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기독교구원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라는 말입니다.

2. 23-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贖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贖良) : 원래,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으로부터 양민의 신분을 얻은 것을 속량이라합니다. 영어론 redemption 원어론, apolutrósisis 인데, 이것은 죄사함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14 에베소서 1:7) 그런데, 이 속량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25절입니다.

2) 이 구절의 다른 의미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값없이>란 <노력없이>, < 댓가없이>라는 말입니다. 눈이 번쩍 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요. 그것은 대가가 없이 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25절입니다.

3. 25절. 바울은 여기서, 속량이 그리스도의 **피(血)와 제물로 드리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罪)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義)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해해야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 3장, 7장에 화목제(和睦祭)의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목제란, 구약의 5대 제사 중, 3번째 제사이며, 이 화목은 하나님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라는 이중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소, 양, 염소로 드립니다.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의 4방 향에 뿌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을 화제(火祭)로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감사제와 함께 드릴 때에는 고기를 드린 자가 먹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보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聖晚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화목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피흘려 죽으심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주님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값이 없는, 그러나 정말 큰 값을 주님이 치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4. 26절. 화목제물은, 이중(二重)의 의(義)를 이룬다.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의로움.

이것을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물됨으로, 두 가지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의 2) 인간의 의입니다.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和睦祭物)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25절 초반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누가 세우셨다고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성과 책임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인만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법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초월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도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법의 통제를 받는 방법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화목제(和睦祭)의 제사제도를 직접 설정해 주신 분이시고, 그 원리를 직접 자기에게 적용(適用)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默想)하는 도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되심>은, 제사법들을 제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드리신 유일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문단 27-31절입니다.

III. 믿음의 법 (27-31)

27-31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27,28절에 한 번씩 나오고, 30-31절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3번, 총5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연관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믿음의 법(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믿음을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율법(律法)이라면, 율(律)의 법(法)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보다 더 낮고 차원 높은 법을 제정하시는 데,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율법이라는 말의 운율에 맞추면), 믿을 신(信)자를 써서, 신법(信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律法) 대 신법(信法)>을 비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법은 새로운 신(新) 신법(新法)이 아니고, 또한 귀신 신(神)자를 사용한 신법(神法)도 아닙니다)

제가 한달 전 12월 8일, 로마서 2:12-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기준 II (3가지 법)을 이야기하였는데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시는지요? 그 3가지는, 하나는 양심법, 둘은 율법, 그리고 셋은 믿음의 법, 신법(信法)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선 안 됩니다(대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믿음의 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 신법(信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는 것을 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신법(信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의해, 의롭게 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27절)
2.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얻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을, 인정(認定)해야 한다. (28절)
3.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공평하게 믿음으로 대하신다. (29-30절)
4. 마지막으로, 이 신법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은 대단원(大單元)의 마감과 같은 것입니다. Augustine은 “신약은 구약(舊約)속에 감추어 있으며,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滿開)되었고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1930년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죄를 지은 경우, 자식이 사죄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즉시 용서해 줄 것인가? 만일 아버지가 쉽게 그를 용서해줄 때, 자식은 그 사랑을 믿고 그 후에도 태연히 죄를 범하게 된다. 만일 이때에 아버지가 자식의 죄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비로서 용서한다면, 자식은 자기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며 이 후에는 결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심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국가(國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살인자를 징계하지 않고, 쉬 용서하는 국가가 있다면, 온 나라는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고 엄격히 시행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려 하신다. 그러나 징계가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다.” (우찌무라 로마서 상 227-229)

사랑과 공의, 별하시는 것과 용서하시는 것, 죄를 정하는 것과 의롭다하시는 것, 이 모든 역설적인 것들(딜레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약(舊約)의 선지자들도, 이것을 알고 미리 노래합니다.

“내가 인자(仁慈)와 정의(正義)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101:1)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사랑과 정의(正義)와 공의(公義)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24)

IV. **적용:** 예수님으로 속량(贖良)하심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和睦祭物)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는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함이지만, 하나님입장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주시는 의롭다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신득의는, 하나님의 고도(高度)의 심리적(心理的) 치료방법(治療方法)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일본의 신학자, 우지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책망(責望) 받고, 항상 죄책(罪責) 가운데 있으면, 결코 선(善)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며, 더욱 더 죄(罪)에 빠집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인해 죄를 용서(容恕)받고, 의롭지 못함에도 의롭다함을 얻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生命)이 솟아나, 도리어 의(義)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義)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사람을 점점 죄악(罪惡)에 빠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에게 선(善)과 정의(正義)를 행하게 하는 힘을 공급(供給)합니다.”(로마서 상 P 210)

3.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옷 위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때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10-11)”

기도: 하나님! 당신은 그저 말로서 우리를 사면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공의의 법을 따라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쳐서, 우리에게 그의 의를 대신 입혀주시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의(義)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화목제물되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의의 겹옷을 입고, 주안에서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의가 아닌,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 법신(信法)을 따라,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